

■ 영상택배 시즌2 - 여섯 번째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이 일궈온 대한민국 2편”

평범한 사람들이 일궈온 대한민국 - 역사사지2편(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관 1945년~1987년)

1945-1987

평화, 민주, 번영을 향하여
For Peace, Democracy and Prosperity
迈向和平、民主、繁荣
平和・民主・繁榮に向けて

이번 호 뉴스레터와 함께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5층 역사관의 상설 전시 가운데 해방 후부터 1987년까지의 기록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까요? 8·15광복, 분단, 6·25전쟁, 4·19혁명, 경제개발, 5·18민주화 운동까지... 꼭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연구원 회원 소식

장근범 개인전
이런 가족 같은 가족

2020. 10. 14. 수 - 11. 21. 토

여는시간 10:30~18:00 일. 월. 화 휴관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16-17(자동차길 16-5) 전화 063. 905. 2366

초기 홍보자료와 기간이 다릅니다.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족들은 서로 서로 닮은 데가 많다.
그러나 모든 불행한 가족은 그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하다.

-톨스토이-

우리 연구원 장근범 운영위원이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서학동 사진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189-20)**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 작업은 가족의 개별적 구성원을 통해 사회적 활동과 가치를 이미지로 재현하고픈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다음달 21일 전에 전주에 오시면 서학동 사진관을 들리셔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진을 만나보시는 시간 권해드립니다. 매주 일,월,화요일은 휴관입니다. **전시회 관련 문의전화 / 063-905-2366**

- 카페 산책 7 -

카페 그레코(Antico Caffè Greco)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카페 그레코는 스페인 광장 앞 골목에 자리하고 있다.

‘옛 그리스 카페라’는 뜻을 가진 카페 그레코는 스페인 광장 앞 콩도티 거리 8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카페는 1760년 그리스 출신의 남자가 문을 열었다. 거대한 도시 로마에는 베드로성당을 비롯하여 바티칸,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 등 세계적인 유적과 볼거리들이 시내를 점령하고 있어서 웬만한 것은 그 명성에 묻혀 빛을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거대함과 화려함 그리고 명성 속에 묻혀 있으면서도 은근히 빛을 발하는 곳들이 숨어 있다. 다시 말해서 왜형 상으로 작고 또한 큰 건물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것 같으나, 거기에 담긴 역사와 의미 때문에 이를 아는 사람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카페 그레코이다. 동양인들에게는 그리 알려지지 않지만, 카페 그레코는 유럽 카페 문화를 대표하는 유명 카페이다. 지금도 명성에 비하면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는데, 초창기에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작고 초라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스페인 광장 앞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특히 커피 맛이 일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덴마크의 안텔센 그리고 독일의 괴테(그는 스페인 광장의 계단에서 직접 스케치한 그림을 그의 '이탈리아 여행 2권'에 삽화로 넣을 정도로 카페 그레코와 인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와 시인 하이네를 비롯하여 음악가 멘델스존이 단골이 되었다.

또한 프랑스의 시인 샤를 보들레르, 아폴리네르 그리고 「로마제국쇠망사」를 쓴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과 스코틀랜드의 국민작가 월터 스콧(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를 셰익스피어와 안 바꾼다고 할 정도로 월터 스콧을 존경한다.) 작가 디킨스, 시인 브라우닝 등이 이 카페 명단에 올라 있다. 그밖에도 스탕달, 오스카 와일드, 쇼펜하우어, 니체 등 사상가와 문인들뿐만 아니라 음악가 베를리오즈, 비제, 구노, 바그너 등 세계 각국의 저명 예술가들이 카페 그레코를 애용하였다.

이공주교수의 「유럽카페 산책」에 보면 '독일의 서정 시인으로서 슈베르트가 작곡한 "겨울 나그네"를 작사한 빌헬름 뮐러도 그레코의 단골이었다. 그는 1808년 1월 20일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겼다.

“오전 중 스페인 광장에서 가까운 카페 그레코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셨다. 여기에는 하루 세 번, 즉 오전 중, 점심 식사 뒤 그리고 저녁에 독일의 예술가들이 모여든다. 커피 맛이 좋고, 다른 카페는 유리컵이지만, 이곳은 단정하게 도자기컵이 나온다.” 또 이탈리아의 화가 구투스는 “어느 날 나는 카페 그레코에 앉아 있었다. 바로 내가 그림으로 담은 그 홀이다. 카페 그레코는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모습으로 기대고 있는 곳이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그 시간에 거기서 만나곤 하였다. 나는 이 카페에서 풍겨 나오는 정신을 표현하고자 이곳을 그림으로 그렸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애용하였고 이곳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별로 크지 않은 한 카페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이곳의 분위기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기하다고 여겨진다.



좌측에 하얀 행이 카페 그레코 입구이다. 골목 끝이 스페인 광장 계단이다. 우측 사진은 스페인 광장에서 골목을 들어서면 만나는 카페 입구이다.

나도 책을 통해 이곳을 알게 되었고, 궁금하여 찾아갔다. 입구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깊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는 카페 우측 벽에 있는 오래된 사진 속에서, 자주 모임을 갖었다는 지성인들의 분위기가 전해지는 때문이다.





친절히 안내하는 이 카페의 매니저



괴테의 초상이 있는 카페의 내부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정면 단정한 양복 차림의 사람이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보아하니 매니저 같았다. 내가 차 마시러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에게로 가서 말했다. 괴테가 차 마셨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런 경우, 비록 차 마시지 않을지라도 미안해하거나 주눅 들을 필요가 없다. 괴테의 자리를 알려 달라는 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매니저는 별떡 일어나더니 따라오라며 앞장선다. 안으로 조금 들어가던 그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키며 '저 그림이 괴테의 초상이며 아래의 테이블이 괴테가 앉았던 자리입니다.' 라고 알려 준다. 차를 마신 것도 아닌데, 손짓으로 안쪽으로 가보라고 해도 될 터인데, 왜 직접 안내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동양인이 의식 딱딱하게 요구해서 그랬을 라나~?

아무튼 유럽의 문학가들, 예술가들이 이곳을 다녀간 후로 그들의 세계적이 명작들이 완성되었다는 얘기와 함께 유럽카페 문화를 로마의 그레코에서 체험하였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신비한 돌구멍 절 <팔공산 중암암> 다섯 번째 이야기 “극락굴과 천왕문”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극락굴 | 해탈의 기약이 없는 사람은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전설의 바위 굴이다. 중간쯤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야만 중암암으로 내려갈 수 있다.

겹겹으로 포개진 기암괴석들이 자아낸 중암의 장관에 홀리다 보면 오늘의 목적지인 극락굴을 놓치기 쉽다. 삼인암 바로 위쪽에 서 있는 중암암 안내판이 쉽게 눈에 띄이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안내판을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바위 아래 왼쪽의 완곡한 경사면에 난 길을 찾기가 다소 애매하다. 그러나 안내판 앞에 서면 발끝 아래로 뚝 떨어진 좁다란 평지에 삼층석탑이 먼저 내려다보인다.

제멋대로 몸을 기대며 영겁의 휴식을 누리는 바윗돌 사이로 가느다란 한 줄기 길이 조심스레 몸을 눕혔다. 몇 그루 소나무가 여전히 우뚝 솟은 길목이다. 동굴 아닌 동굴 곧 극락굴 입구다.

극락굴은 '화엄굴'이라고도 불린다. 이 바윗굴에서는 전방의 눈부신 햇살이 이정표 역할을 하는데, 중간에서 도리어 오른쪽으로 갑자기 꺾어야만 중암암으로 가는 출구가 나온다.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날 정도로 폭이 매우 좁으니 예로부터 돌구멍절을 찾기 위해 반드시 거치던 석굴이다. 이 좁은 바위 굴 사이를 비비고 드나드는 과정에서 구태의 허물이 벗겨지며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여 언제부턴가 극락굴로 불렸다.

그래서 그럴까? 극락굴을 지날 때마다 바위에서 끼치는 서늘한 냉기는 늘 경외심을 불러 일으킨다. 돌구멍절을 찾는 나그네들이 일순 긴장하는 즈음이다. 그 긴장 끝에는 늘 화살한 대가 진리의 과녁을 향해 팽팽하게 채워진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는 아직도 묘연하다.

극락굴을 빠져나오면 잠깐 사이에 돌계단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커다란 바위 아래에 자리를 펼친 3m 높이의 아담하고 고풍스런 삼층석탑에 이른다. 전형적인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 양식을 따른탑이다. 조성 시기는 중암암 창건 시기인 고려 초기로 추정된다.

탑에서 아래로 더 내려가면 오솔길이 갈라진다. 왼쪽으로 20m쯤 떨어진 곳에 '천왕문'이 우뚝하다. 천왕문은 중암암 앞을 지키는 석문石門이니, 대체로 거대한 바위 몇 개가 서로 몸을 맞대 이루어졌다. 그 틈새로 설핏 비치는 중암암의 묘사채 지붕이 반갑다.

천왕문은 여느 사찰의 전면에서 보는 사천왕문四天王門의 역할을 한다. 본래 사천왕四天王이란 수미산 중턱에 있는 사왕천四王天的 주신主神들을 가리킨다. 동방의 지국천왕持國天王, 남방의 증장천왕增長天王, 서방의 광목천왕廣目天王, 북방 다문천왕多聞天王的 총칭이다. 그런데 지상의 사찰에서는 사천왕문을 세워 잡귀의 침입을 막도록 한다.

이곳의 천왕문은 돌구멍절을 지키는 사천왕문이다. 다른 사찰의 사천왕문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무섭고 험상궂은 얼굴과 자세의 신장神將 모습이 아닌 그냥 돌구멍이다. 천왕문은 본래 지금보다 더욱 좁았는데, 전기가 들어오면서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을 반입하느라 넓혀서 마침내 오늘의 모습을 이루었다고 한다.



중암암 삼층석탑 | 천왕문 앞쪽의 공터를 지키는 탑인데, 기단 위에 탑신을 3층으로 쌓았다.

발치에 천왕문이라고 쓰인 표지석 하나만이 외롭게 세워졌다. 벽면에는 신장들의 암각이나 그림 한 점이 없다. 일견 무심해 보이는 풍광이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이유는 돌구멍절을 지키는 신장神將들 때문이다.

다음 회는 <팔공산 중암암> 여섯 번째 이야기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돌구멍절”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